

전남도, 일본-중국 바닷길 다시 잇는다

사스·후쿠시마 원전 사고 단절 항로 재개 추진

광양~시모노세키, 목포~저장성 카페리 협의

전남도가 지난 2003년 중국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끊어진 중국 및 일본 항로의 재개를 추진한다. 도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수축산물의 대일 수출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면서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직접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중단된 광양~일본 시모노세키항 카페리 선사 '광

양라인'이 2016년 3월 1일 재개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이미 자본금 10억3000만원을 마련하고 60억원 출자를 진행중이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내년에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광양~일본 시모노세키항 카페리는 2011년 1월 1일 첫 취항에 나섰으나 2개월여 뒤인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승

객 급감으로 1년만에 중단됐다. 다만 선사 측이 취항 후 2년간 40억원씩, 이후 20억원씩 운항 손실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광양시와 전남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의 재정 형편에서 이 같은 지원을 불가능하다는 방침 아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목포~중국 저장성 닝보저우산항 카페리 운항도 이르면 2017년 상반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낙연 전남지사가 방문한 후 카페리 운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목포 해양대가 이달부터 3개월간 물동량 유지 및 이윤 창출 방안, 운항 손실 금

액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 해운협정에 근거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절반씩 지분을 갖는 선사를 설립해 여객·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전남도는 2016년 8월로 예정된 제24차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목포~상해 노선은 지난 2002년 11월 20일 운항에 들어갔다가 5개월 여 만인 2003년 4월 21일 사스로 운항이 정지됐다. 다시 2006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운행되다가 선사 경영난으로 다시 중단된 뒤 9년 넘게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전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통과

강성희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희 위원장(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료관광 상담과 홍보,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운영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양성 ▲선도의료 기관 지정 추진 등이다.



강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최근 전남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전남의 의료관광 비중은 환자 수로 볼 때 전국 의료관광의 0.1% 수준으로 미약하다"며 "2014년 한 해 무안공항을 통과한 중국관광객이 3만2000명으로, 의료관광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도의회 의정자문위 설치 조례안 의결

우승희 전남도의원 발의

전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과 정책대안 개발, 의정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총 35명 이내로 구성



하고,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우 의원은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정책대안 마련 등 자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도의회 입법권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애인 소원트리 만들기 체험 성탄절을 나흘 앞둔 21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사회적 기업인 '래인롤라워'에서 열린 'FUN FUN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등 50명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비확보 협력엔 감사, 내년 사업 공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 지원사업 기관 선정

광주시, 23·24일 여야 당정협

광주시가 연말을 맞아 여야와 차례로 당정협의를 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정례회의를 한다.

박해자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장병원·임내현·권은희 등 지역 의원들 그리고 윤정현 광주시장 등 시 간부들이 참석한다. 당 소속 지지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단 등도 협력을 다짐하기로 했다. 박해자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의원들과 시가 하나돼 국회 심의단계에서부터 예산증액, 삭감대응 등 대처로 결실을 봤다"며 "내년에도 정책 현안엔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에는 심판구 광주시당 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광주시당 당직자들과 시 간부들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광주에서 지역 정치권을 아우르는 송년 모임 성격의 당정협의회가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여야와 함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준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운영,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 추진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년간 23억 기업에 지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활성소재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바이오활성소재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관련 기업에 지원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전남지역 바이오활성소재산업의 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선도기업 육성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고급화와 글로벌 인증(인허가), 유력 바이어 매칭 지원, 수출상담회, 해외 판촉

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 바이오활성소재산업군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30개 업체를 집중 지원해 수출액 210만 달러, 신규 고용 115명, 매출 증가액 4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www.jbf.kr)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2016년 1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7개 특화센터를 구축하고 생물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활동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특장차 등 기업과

900억원대 투자협약 체결

광주시가 자동차·에너지·광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과 900억원대 투자협약을 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상용트럭, 대덕아이엠티 등 13개 기업과 투자액 912억원, 고용 492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 규모는 한국상용트럭 등 자동차 관련 4개 기업 309억원, 성경글라스 등 에너지 관련 6개 기업 304억원, 네온포토닉스 광산업 관련 3개 기업 299억원이다.

특히 특장차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광주가 관련 분야 전국 1위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고 시는 평가했다.

한국상용트럭은 올해 350억원 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특장차 분야 전국 1위 기업으로 광주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특장차 유압 실린더 전문 제조업체인 대덕아이엠티는 공장 신설을 위해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중·대형 트럭 생산기지가 없지만 과거 아시아자동차에서 근무한 전문 인력의 노하우가 지역에 축적돼 부품업체 간 협업체계가 갖춰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의원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미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눈모양빌딩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